

junggu.ulsan.kr
2018 WINTER / VOL.179

주거뉴스



중구 예산과 관련해 구민들에게 드리는 글
울산큰애기, 전국적 인기 캐릭터 등극

전 구민안전보험 가입 등 2019년 달라지는 시책
겨울, 중구 곳곳에서 김장·사랑 나눔 지속돼



울산광역시 중구



중구 지역 곳곳에 사랑과 행복을 비추다

지난 11월 마지막 날, 원도심 옛 울산초등학교 맞은편 문화의 거리에서 주민들이 함께 한 가운데 높이 12.5m, 지름 6m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밝혀졌다. 이어 올려퍼진 중구소년소녀합창단의 캐롤이 어느덧 추운 겨울이 우리 곁에 자리했음을 알렸다. 별빛처럼 환하게 켜진 크리스마스 트리의 등처럼 이 겨울 중구 지역 곳곳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밝은 사랑과 행복이 비춰지길 소망한다.



08



16



18



27

혁신 중구, 주민 중심 행정

- 04 <담화문> 2019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 06 중구의 일자리 사업, '만족'합니다.
- 07 지역 기관들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찾는다.
- 08 혁신중구서 일자리 찾으세요.
- 10 중구-SK 울산Complex와 손잡고 일자리 만든다.
- 11 우정혁신도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만들자.
- 12 혁신 중구, 2019년 주민 위해 진화한다.
- 13 강변 산책로에서도 담배 안돼요.
- 14 태화강지방정원서 전동차 타세요.
- 15 주민서비스 중구서 누리세요.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중구

- 16 울산큰애기, 전국적 인기 캐릭터 등극
- 18 울산큰애기 일본으로 진출하다.
- 20 중구 관광마케팅 '참 잘했어요.'
- 21 '울산큰애기, KTX서울역서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중구' 알러
- 22 원도심 울산큰애기 관광해설사 통해 알자
- 23 올해도 중구서 눈꽃 즐겼다.

사랑 나눔으로 따뜻한 중구

- 24 중구, 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합니다.
- 25 저소득 먹거리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 26 지역 곳곳에서 실현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 28 추운 겨울 이어지는 사랑의 후원금·물품 전달



표지이야기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 줬던 서민의 연료 '연탄'. 요즘은 쉽게 찾을 수도 없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는 추위를 잊게 만드는 소중한 난방 수단이다. 울산라이온스클럽은 연탄 2,700장을 구입, 지역 내 10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따스한 정을 건넸다.

발행·편집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발행일 2018. 12. 21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북산동)

Tel. 052. 290. 3270

홈페이지 <http://www.junggu.ulsan.kr>



- 30 우리가 본 중구-중구뉴스 기자단
- 32 중구의회
- 34 생활정보

담 화 문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구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오늘 저는 2019년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구민 여러분께 답답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현재 우리구의 재정 상황을 알려드리고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당초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6.37%인 220억원이 늘어난 3,679억원으로, 의존재원은 243억원이 증가한 반면 자체재원은 46억 감소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일반회계)는 전년 17.98% 보다 2.24% 포인트 떨어진 15.64%이며,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 자체 재원 및 조정교부금 감소 등 자주재원이 89억 감소한 반면,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 확대 및 국·시비보조 사업에 따른 구비부담분 140억원이 증가하는 등 우리구의 재정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 과중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 기초연금은 올해보다 68억원이나 증가한 542억원, 보육료는 20억원이 늘어난 313억원, 생계 및 주거급여는 29억원이 증액된 213억원 등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구민 삶의 안정과 개선을 위하여 복지, 일자리, 안전 등에 대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지역개발, 시설 건립 등으로 전개해 나가 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 당초예산에 대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1. 공무원 수당 및 업무추진비 등에서 올해보다 13억원 상당을 줄였고, 사무관리비는 15억원을 적게 편성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저희의허리띠를 먼저 졸라맸습니다.
2. 행사운영비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보다 8억원 가량을 줄였습니다.
3. 주민 생활개선 및 민생 예산 우선 원칙에 따라 주요 사업중 신청사 건립 전출금 58억원을 비롯해 산악 자전거 파크장 여가 녹지사업 25억원, 중구야구장 조성 20억원, 중구문화원 건축비 11억원 등 전체 12개 사업 212억여원은 향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4. 주요 국·시비보조사업인 도시재생사업, 공공형 실버 주택건립, 태화·우정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은 국·시비만 우선 반영하고 구비부담분 중 113억원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향후 추경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심각한 재정위기,

구민과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민의 삶 안정과 개선과 관련해서는 CCTV설치 및 운영 관리 22억원, 출산장려금 18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8억원, 구민안전보험 보험료 3억원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구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기에 구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중구청 공무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정수, 체납액 축소 등 세입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일몰을 정례화하여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신규 사업은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울산시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상황을 구민에게 공개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꾸준히 확보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19.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박 태 완**

중구의 일자리 사업, '만족'합니다.

사업 참여자 66% 만족... 경제적 도움, 취업기회 제공 등의 참여효과도



대부분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근무내용·근무 환경·보수·근무강도·동료 관계·작업장 관리감독와 같은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대부분 만족함을 드러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복 답변이 가능한 사업 참여 결과 전체의 38%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해 희망일자리사업이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취업기회를 제공해 줬다는 응답이 18%, 자기발전과 성취감을 갖게 됐다는 의견이 14%,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 울산 중구청이 시행한 올 한 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참여자들로부터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2018년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가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참여자의 만족 수준과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내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했다.

설문대상은 2018년 희망일자리사업에 참여한 100명의 참여자들로, 이 가운데 78명이 응답했다.

이번 설문에서 올해 희망일자리사업에 '매우 만족'한다거나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26명으로 전체 66%를 차지했으며, 이어 '보통'이 23명으로 29%, '불만'은 3명으로 3%에 그쳐 응답자의

인식을 갖게 됐다는 답변도 12%나 돼 실질 상태에서 받은 실의와 좌절을 단기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성취감 등 해소해 심리적인 위기감 극복에도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 대부분은 향후 취업알선교육(97%)과 직업훈련교육(87%)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높은 재취업에 대한 열의를 보였으며, 낮은 임금과 짧은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개선을 부탁했다.

이외에도 기타의견으로 우천 시 휴식공간의 마련을 요구하거나 재취업의 기회 확대, 희망일자리사업 확대와 증원 등도 촉구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획단계에서부터 '재취업을 위한 징검다리'라는 희망일자리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 울산 중구

지역 기관들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찾는다.

일자리창출 사업 발굴과 공모, 수행 등에 공동 협력... 일자리창출 효과 극대화 노력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주택관리업체 3곳 등과는 일자리창출 위한 업무협약도 맺어



■ 울산 중구청이 민선7기 주요 공약인 일자리창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창출에 나섰다.

중구청은 10월 30일과 11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위해 지역 내 전문 일자리사업 수행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울산광역시단 여성인력개발센터, 중구문화원,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나누다 사회적협동조합 등 4곳이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교육·훈련, 창업·창직,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11월에 사업을 공모하고, 12월에 심사·선정해 2019년 1월부터 추진된다.

중구청은 예년보다 빨라진 공모일정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사업수행기관을 발굴했으며, 차별화된 새로운 일자리 분야 사업 발굴과 공모·수행을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구청은 지역 내 고용위기 대응과 신중년의 일자리창출, 차별화된 새로운 일자리 분야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공모신청과 사업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4곳의 사업수행기관들은 중구청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공모에 적극 참여하고, 공모사업 선정 시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사업공모 전까지 사업수행기관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심화되는 실업을 증가에 대비한 전문인력양성과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구청은 12월 13일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사, 12월 16일에는 지역 주택관리업체 3곳과 함께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주민에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공동으로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구청은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중구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알선하고, 기업의 인력채용 전담관리를 통해 지속적·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협약을 체결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사와 지산주택(주)과 (주)하이에크주택, (주)신한종합관리는 직원 모집 시 '중구 일자리지원센터'와 협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워내기 위해 중구 구민을 우선 채용토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혁신중구서 일자리 찾으세요.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건 울산 중구의 민선7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채용박람회에 지역민 1,000여명이 참여하면서 취업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다. 중구청은 10월 23일 2층 중구컨벤션에서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민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2018년 하반기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조리사, 간병사, 생산원 등 직·간접 구인업체 40개 참여

전체 188명 채용 예정에 울산 전역서 1천여명 주민 몰려... 구직 열기 '뜨거워'

민선7기 일자리 종합계획(안) 수립... 2022년까지 실정 맞는 2만7,500여개 일자리 만들기 목표

□ 이날 박람회에는 태창기업(주)과(주)더파티울산신선도원점, 참사랑어머니회 울산지점과 (주)현승이엔티 등 20개 업체가 직접 참여해 현장에서 이력서를 접수받고, 면접을 진행했다.

또 건우엔텍과 부경이엔지, 주식회사 해원, 21세기 좋은병원 등 20개 업체는 이력서만 현장에서 접수하는 간접 업체로 참여해 참가자들의 구직 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혔다.

이들 40개 업체가 이날 채용박람회를 통해 채용하게 될 인원은 업체별로 1명에서 최대 32명까지, 전체 188명에 이른다.

직종도 조리사나 간병사, 경비원과 같은 초보자가 가능한 것부터 조경관리원과 용접, 사상과 취부 등 경력자를 우대하는 분야,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처럼 자격증을 필수로 요구하는 전문 분야까지 다양했다.

박람회 참가업체들은 시급부터 월급, 연봉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와 운전면허증이나 교육수로 필수 등 필요한 자격증 등의 지원 조건을 제시하고, 잔업가능 여부와 주야 2교대 등 근무 형태에 대해서 설명했다.

또 자녀학자금이나 상용직 전환검토, 통근버스와 월 휴무일자 등 업체별 장점을 어필하며, 더 나은 구직자 찾기에 힘을 쏟았다.

이날 현장에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울산 전역에서 찾은 1,000명이 넘는 구직자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적였다.

중구청은 이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이력서 작성을 돕거나 취업상담을 진행했고, 중구시니어클럽은 이력서 작성을 위한 증명사진을 무료로 촬영해 제공했다.

또 박람회에 참여한 울산고용센터는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을, 전문교육업체에서는 성격유형 검사와 이미지 메이킹 등을 무료로 실시해 구직자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벌였다.

이외에도 청년재단 울산센터는 청년정책을 안내하고, 울산중소벤처기업청은 창업과 노무 상담을 벌였으며,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스트레스 검사와 상담으로 구직자의 정신건강관리를 도왔다.

이날 현장에서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는 모두 12명. 그 외에 112



명은 현장 면접 통과라는 성과를 얻어 업체별로 2차 면접을 벌이게 된다.

한편, 중구청은 최근 중구의 추진여건과 인구·산업구조·고용동향 등 노동시장 현황을 분석해 '혁신 중구, 일자리를 주는 도시'를 비전으로 한 민선 7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안)을 수립했다.

종합계획(안)은 일자리를 주는 도시로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로 더 행복한 공동체를 회복하며, 언제, 어디서, 누구나 더 누리는 직업교육이 가능한 중구(JUNGU)형 일자리에 대해 5개 핵심과제와 18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중구청은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형 일자리와 직접 일자리, 위탁운영 등 일자리 창출로 1만9,700여개, 취·창업 지원으로 6,660개, 인력양성을 통해 1,110개 등 전체 2만7,500여개의 중구형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구청은 민선7기 출범이래 일자리창출실 설치로 '일자리를 주는 도시'의 기반을 마련했고, 체계적인 일자리관리를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일자리 창출 TF팀'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울산중구

중구-SK 울산Complex와 손잡고 일자리 만든다.

중구청에 5,000만원 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3곳에 지원



□ 울산 중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대기업과 중구청이 손을 맞잡았다.

중구청에 따르면 SK울산Complex(총괄 부사장 박경환)는 11월 29일 중구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을 위한 후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중구는 이 후원금을 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과 우리집장애인보호작업장, 하늘물고기장애인보호작업장에 각각 2,700만원과 1,200만원, 1,100만원으로 나눠 지원한다.

세 곳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각각 사업장 기능보강 등을 통한 장애인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업무 교육을 실시하는데 사용해 작업의 안전성과 효율성 등을 높일 계획이다.

SK 울산Complex은 앞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5,000만 원을 후원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왔다.

중구는 이를 활용해 2015년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2016년에는 다문화가정 여성과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만드는 사업을 벌여왔다.

또 지난해에는 중구종합사회복지관과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해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가정 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교육과 공예체험장 등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SK 울산Complex 백부기 대외협력실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근무여건 등이 개선돼 생산 능력이 향상되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생산적 복지의 일환으로 그룹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지원에 힘쓰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중구청과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중증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중구 지역 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중구청도 SK 울산Complex와 적극 협력해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우정혁신도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만들자.

실효성 있는 소통 채널 마련... 향후 사업 공동추진, 일자리 확충 등 협력사업 발굴·진행



□ 울산 중구에 자리 잡은 우정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 중구청과 이전공공기관 9개소가 손을 맞잡았다.

중구청은 11월 2일 2층 중회의실에서 박태완 중구청장을 비롯해 우정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9개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혁신도시 시론2 정책 추진에 발맞춰 중구청과 한국석유공사 등 9개 이전공공기관의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해서 상호간 실무 협조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통 채널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실무자 중심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부서별로 관련 업무에 맞춰 구청 실과장과 공공기관의 실무자간의 1대1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중구가 추진 중인 각종 문화, 예술, 체육행사 등에 이전공공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거나 공공기관이 대규모 교육 시 숙박 등을 안내하고, 동아리 활동과 체육 교류를 통한 소통과 만남의 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각종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사회공헌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일자리 확충을 위한 발굴·지원·연계 추진 등에 적극 나서고, 혁신도시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해 시 혁신도시 발전계획과 연계해 문화, 체육, 교통, 보육, 공원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이번 간담회 등을 통해 구축된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체감할 수 있는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를 통해 혁신도시가 울산의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중구

중구, 구민안전보험가입 등 13개 신규 시책 추진

구민 안전, 일자리창출, 주민 편의, 경제 활성화, 출산 지원, 환경 보호 등의 분야

■ 울산 중구가 주민의 안전과 일자리창출, 편의와 건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들을 2019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등 구정 목표인 '혁신 중구, 새로운 시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중구청은 2019년 1월부터 안전총괄과와 일자리창출실, 환경위생과 등을 중심으로 구민안전보험 가입과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배달음식점 위생수준 확인 전용 앱 개발 등 모두 13개의 시책을 자체적으로 새롭게 시행한다.

1. 구민 안전복지강화를 위한 구민안전보험 가입

사고당일 기준으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이 다양한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치료비 등의 보장 혜택 제공

2. 저지대 침수취약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저지대 노면수 월류에 대한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전체 2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2019년 5월까지 지역 내 저지대 침수취약주택 등을 대상으로 차수판 설치를 지원

3.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

신청일 기준 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18세에서 39세 청년구직자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최대 연 3회에 걸쳐 1회에 3박 4일간 면접용 정장 자켓과 바지, 스커트 등을 무료로 대여

4. 배달음식점 위생수준 확인 전용 앱 개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소비자가 배달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음식점들의 위생상태 개선을 유도하고, 중구 지역 내 배달음식을 믿고 먹을 수 있는 분위기 형성

5. 태화강지방정원 친환경 전동차 운영

태화강지방정원에 매일 7회에 걸쳐 친환경 8인승 전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누구나 1회 1,000원의 요금으로 관광 투어를 즐길 수 있도록 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6. 고복수 음악살롱 운영

원도심 내 2층 규모로 일제강점기 민족의 설움을 대변했던 울산 중구 출신 국민가수 고복수 선생의 대표곡 타향살이 등을 이미지

텔링화 한 음악살롱 조성을 통해 볼거리 확대와 골목 상권 활성화 유도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주민등록상 중구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자에게 본인 부담금(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40만원 한도)을 지원

8. 출산축하용품 확대 지원

2019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중구에 출생신고 한 영아의 부모에게 체온계 등 기존 2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25만원 상당으로 확대해 지급

9. 75세 이상 생애돌봄 확대지원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7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1종·2종) 중 틀니 신청자에게 시술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10. 구민과 소통하는 '지방세 콜센터' 운영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납부 기간 중 야간과 중식시간에 구민과 소통하는 '지방세 콜센터' 전담팀을 운영해 납세자에게 맞춤형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

11.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알림 서비스

사망 신고 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배부해 취득세 신고절차를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예방

12. 기후변화 적응 클루프 사업 시행

지역 내 경로당, 국·공립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건물 옥상의 차열페인트 도색을 지원해 아동과 노인 등의 기후변화(폭염) 취약계층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냉방 에너지 절감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13. 아름다운 간판 정비 지원

광고물 설치기준을 준수한 업소 가운데 상호 변경 없는 노후 간판의 교체를 신청하는 업소에 최대 100만원까지 설치비용의 70% 이내를 지원함으로써 아름다운 간판 거리 조성

울산 중구

강변 산책로에서도 담배 안돼요.

전체 12.9km 구간 모두 금연... 3개월 계도기간 거쳐 2019년 2월 본격 단속



■ 울산 중구청이 지역의 대표적인 산책로이자 자전거 길이 조성돼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태화·동천강변 구간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선포했다.

중구보건소는 11월부터 태화강변과 동천강변 일원의 산책로 3m와 자전거 길 3m 등 폭 6m의 전체 12.9km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와 공보 등에 고시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등에 근거한 것으로, 많은 주민과 관광객 등이 이용하는 강변 산책로와 자전거 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구간은 태화·동천강변 산책로와 자전거길 12.9km, 폭 6m, 전체 7만7,400㎡로, 중구 동동 829번지에서 삼일교, 외솔교, 동천교, 내항교, 학성교, 변영교, 태화교와 태화강

축구장, 삼호교를 지나 다운동 배리끝까지다.

중구보건소는 11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2월부터는 이 구간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구청은 앞서 서덕출공원과 태화강대공원 등 2곳의 공원과 지역 내 버스승강장 188개소, 금연아파트 4곳 등 전체 19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해 왔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청사 22개소와 공공기관청사 14개소, 유치원과 학교 78개소, 의료기관 242개소, 학원 438개소, 당구장 등 체육시설 188개소, PC방 등 153개소, 담배판매업소 621개소, 음식점 3,005개소 등 전체 5,711개소도 금연구역으로 운영 중이다. 

태화강지방정원서 전동차 타세요.

최대 8명 탑승, 하루 7차례... 대나무광장 등 3km 구간 코스에 1인당 1,000원



□ 울산 중구청이 민선7기 공약사항이자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태화강 지방정원에 친환경 전동차를 운영한다.

중구청은 태화강 지방정원에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의 보행 약자들이 편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7일부터 친환경 전동차의 본격적인 운행에 나섰다.

이를 위해 중구청은 앞서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길이 3.6m, 3열로 운전자를 포함해 최대 8명이 탑승 가능한 친환경 전동차인 골프카트 개조차량을 구입했다.

또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차량 운전자를 뽑아 차량 운행과 태화강 지방정원의 주요 지점에 대한 해설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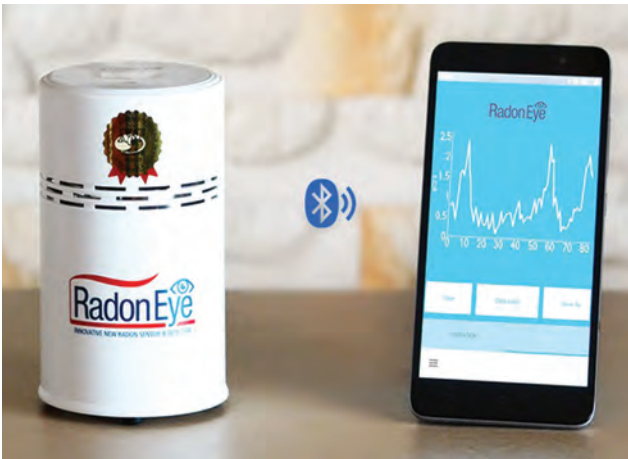
전기 배터리를 이용해 친환경으로 움직이는 이 전동차량은 20km/h의 속력으로 태화강 지방정원을 운행하게 된다.



운행 코스는 대나무광장에서 출발해 오산광장과 국화밭, 대나무 생태정원, 향기정원과 새터다리 왕버들, 무궁화정원을 지나 다시 대나무광장으로 돌아오는 3km로, 약 30분 가량이 소요된다.

친환경 전동차는 오전 10시와 11시를 비롯해 오후 1시와 2시, 3시와 4시, 5시 등 하루 7차례 운영되며, 요금은 1인당 1회 1,000원이다. 

주민서비스 누리세요.



중구, 울산 최초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 실시

□ 울산 중구청이 지역 최초로 라돈 측정기를 구입해 무료 대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중구청은 전체 4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라돈 측정기인 '라돈 아이' 24대를 구입해 안전총괄과와 13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하고, 11월 15일부터 주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는 최근 침대 매트리스와 온수매트 등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주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대여함으로써 구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민등록상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면 1인 1대를 대여할 수 있고, 대여 가능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대여를 원하는 주민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중구청 안전총괄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확인한 뒤 대여대장을 작성하면 측정기를 대여할 수 있으며, 사용한 측정기는 2일 후 본인이 대여한 곳에 반납하면 된다. 



중구, 지역 내 3곳에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 울산 중구청은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알리미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체 3,4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높이 2.8m, 표출면 3개면으로 제작된 미세먼지 알리미를 구입해 태화루 버스정류장과 성남둔치 공영주차장 입구, 동천 자전거연습장 등 3곳에 설치했다.

미세먼지 알리미는 미세먼지의 농도와 기온, 습도, 풍향, 오존, 주의보 등 11종의 대기환경에 관련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농도에 따라 색깔과 수치, 울산큰애기 이모티콘 등을 활용해 표시해 준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으로 예보될 때에는 중구의 대표 관광 캐릭터인 '울산큰애기'가 웃고 있는 이모티콘이 나와 미세먼지에 대해 안심하고 야외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 



울산큰애기, 전국적 인기 캐릭터 등극

울산 중구청의 관광캐릭터인 '울산큰애기'가 전국의 다양한 캐릭터 가운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기 투표에서 3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회 우리동네 캐릭터 축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 울산 중구청의 관광캐릭터인 '울산큰애기'가 전국의 다양한 캐릭터 가운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기 투표에서 3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회 우리동네 캐릭터 축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전체 75개 지역·공공 캐릭터 중 예·본선 3만여표 획득으로 3위, 지자체 가운데 1위'

앞서 중구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함께 올해 처음으로 지역·공공 캐릭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한 '제1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 지난 7월 '울산큰애기'를 접수했다.

이 대회에는 '울산큰애기'를 비롯해 전국의 지역·공공 캐릭터 75개가 참여했으며, 참가 캐릭터들은 온라인을 통해 지난 8월부터 대국민 인기 투표를 벌여 예선과 본선을 치렀다.

'울산큰애기'는 이 투표 가운데 예선에서 7,119표를 획득, 전체 5위로 본선에 진출했으며, 본선에서 진출한 16개 캐릭터 가운데 2만3,716표를 얻어 합산 3만835표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전체 캐릭터 가운데 1위인 반달이(국립공원관리공단), 2위 포이(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이어 3위의 기록으로, 지방자치단체 캐릭터 가운데는 1위의 영광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 대회에서 '울산큰애기'가 전국의 쟁쟁한 캐릭터들을 제치고 지자체 1위이자, 전체 3위의 기염을 토할 수

있었던 것은 새침하고 귀여운 이미지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친근하고 재미난 캐릭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알림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중구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청은 이번 '제1회 우리동네 캐릭터 축제'에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울산큰애기'를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축제에서 울산큰애기는 본선 진출 캐릭터들과 함께하는 퍼레이드를 비롯해 캐릭터 공연, OX퀴즈 등을 진행하면서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자신의 매력을 뽐내고,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울산 중구를 알렸다.

또 관광지도·가이드북·관광도시 리플릿 등 홍보물 배부, 인형·에코백 등 울산큰애기 캐릭터 상품 전시와 홍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운영해 전국적인 인기 캐릭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울산큰애기 일본으로 진출하다.

□ 울산 중구청의 관광 캐릭터인 '울산큰애기'가 일본 유루카라 그랑프리에 참여해 그 이름을 알렸다.

'울산큰애기'는 11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일본 히가시오사카시에서 열린 '2018 유루카라 그랑프리'에 참여해 홍보관을 운영했다.

이번 홍보관 운영은 지난 10월 전국 캐릭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기 투표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우수상'으로 3위를 차지함에 따라 유루카라 그랑프리에 초청받아 추진하게 됐다.

유루카라, 또는 유루캐릭(일본어: ゆるキャラ)은 행사와 캠페인, 특산물 소개 등 지역 전반에 대한 홍보 등에 사용 지역 마스코트 캐릭터로, 유루카라 그랑프리는 단순한 지역 홍보를 넘어 일본의 거대한 캐릭터 산업의 인기 있는 캐릭터를 뽑는 대회로 발전했다.

2010년부터 시작한 유루카라 그랑프리는 올해 9회째로 온·오프

라인 투표를 통해 캐릭터별 최종순위를 선별하게 되며, 온라인 투표는 지난 8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오프라인 투표는 17일, 18일 양일간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일본 내·외에서 1,311개(지역 905, 해외 4, 기업·그 외 402) 캐릭터가 관람객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뜨거운 각축을 벌였다.

행사에서 중구청은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울산 중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와 먹을거리를 소개하는 한편, 울산큰애기 캐릭터만의 매력을 일본 전역에 알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다.

주요 이벤트와 체험프로그램으로 ▲울산큰애기 송 안무 배우기 ▲울산큰애기 팬사인회(울산큰애기와 사진촬영, 스탬프를 찍은 엽서 증정) ▲울산큰애기에게 소원을 말해봐(소원카드 작성) ▲울산



중구 대표 관광지, 먹거리 소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울산큰애기 매력 어필

큰애기 퀴즈쇼(울산큰애기 명함 제공과 퀴즈 참여) 등을 진행했고, 일정 미션을 수행 시 다양한 선물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풍성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일본과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울산큰애기만의 매력을 강력하게 어필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 그랑프리의 참가를 계기로 울산큰애기 캐릭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발돋움하길 바란다”면서 “울산큰애기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2019 관광도시 울산 중구의 성공으로 이어져 울산 중구를 찾는 해외관광객의 발길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구 관광마케팅 '참 잘했어요.'

□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돼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울산 중구가 전국에 매력적인 관광지로서 마케팅을 잘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청은 11월 29일 전남 광양시 락희호텔 15층 연회장에서 열린 '2018 제4회 트래블아이 어워즈'에 참석해 관광마케팅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트래블아이는 전국 229개 지자체의 관광정보와 트래블 지수에 따른 관광 순위 정보를 제공하는 관광정보 마케팅 플랫폼으로, 문화마케팅 연구소가 주최하고, 트래블아이와 트래블투에이가 주관한다.

이 상은 지난 1년간 지역 관광 정보 제공에 대한 지역기관의 참여도, 트래블 피플 관여도 등의 활성화 수준을 산출한 지역호감도를 바탕으로 정량평가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정성평가를 거쳐 8개 부문, 24곳의 수상기관을 선정해 수여한다.

중구청은 지난해 울산 중구가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 '울산큰애기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중구여행'을 컨셉

“

울산큰애기송과
뮤직비디오 출시,
댄스버스킹 등 브랜딩
사업으로 관광마케팅 강화

”

으로, 울산큰애기 브랜딩 사업 등을 통한 관광마케팅을 강화해 왔다.

이를 위해 울산큰애기가 SNS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관광지를 둘러보며 찍은 사진을 올려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웹툰, 어린이연극과 세미뮤지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울산 중구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전국에 알려왔다.

특히, 지난 10월 정부의 '제1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울산큰애기가 전국 지자체 캐릭터 가운데 1위, 전체 3위를 수상하면서 전국적인 인기캐

릭터로 자리매김했고, 울산큰애기송과 뮤직비디오를 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여행박람회 관광홍보관 운영, 일본 캐릭터대회 출전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관광마케팅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울산 중구를 찾을 수 있도록 전국에 알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찾아온 관광객들이 즐거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큰애기, KTX서울역서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중구' 알려

□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돼 다양한 준비를 진행 중인 울산 중구청이 전국에 울산 중구를 알리기 위한 홍보전에 참여했다.

중구청은 11월 5일 KTX 서울역 2층 여행센터 앞 맞이방에서 열리는 '코레일 전국관광명소 릴레이 홍보전'에 참가해 '2019 올해의 관광도시'와 지역 관광 상품을 홍보했다.

이번에 참가한 '코레일 전국관광명소 릴레이 홍보전'은 코레일 주관으로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KTX 서울역에서 기차로 떠나는 가을여행이라는 주제로 지자체 관광명소별로 릴레이 방식으로 시행됐다.

울산에서는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중구와 울주군이 참여했다.

전국 10여개 지자체와 함께 참여하는 이번 홍보전에서 중구청은 2019 올해의 관광도시를 맞아 '울산큰애기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중구여행'이라는 컨셉으로 홍보를 진행했다.

서울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울산큰애기가 십리대숲과 원도심

“
울산큰애기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중구여행
컨셉으로 홍보
”

일원, 입화산 참살이숲 야영장과 병영성 인근 등 중구 지역 내 관광지를 설명했다.

또 울산큰애기 캐릭터 상품 소개와 홍보물 배부, 울산큰애기와 사진찍기, 울산 중구 퀴즈이벤트, 울산먹거리 시식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전개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관광홍보마케팅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원도심 울산큰애기 관광해설사 통해 알자!

■ 울산 중구청은 10월 18일부터 연중으로 원도심 등 투어 해설과 주요시설의 안내를 실시하는 '울산큰애기 관광해설사'를 운영한다.

‘울산큰애기 관광해설사’는 중구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체계적이고, 특색 있는 관광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해설사다.

2019 올해의 관광도시의 성공을 위해 양성된 이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문 교육을 거쳤으며, 중구청은 이들의 이론과 현장 설명을 평가한 뒤 전체 12명만 선발했다.

이들은 원도심 내 고복수길과 똑딱길 등을 거닐며 해설을 진행하는 ‘도보관광 해설’을 비롯해 이후 문을 열게 될 고복수음악살롱 등지의 해설과 안내를 맡아 내년 말까지 활동한다.

울산큰애기 관광해설사는 중구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설하며, 개인은 하루 3차례, 단체는 하루 1차례, 도보 1시간 내외의 해설을 한다.

“

개인과 단체

1시간 내외 해설...

울산큰애기하우스,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

”



개인은 3명 이상의 방문객 또는 관광객이 울산큰애기하우스를 직접 방문해 요청하면 되고, 해설시각은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5시다.

단체는 기본적으로 오후 3시로 정해져 있으나, 사전 협의를 통해 관광객 단체의 일정에 맞춰 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설이 필요한 단체는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방문 3일전까지 중구청 문화관광과로 전화(☎ 052-290-3690) 또는 팩스(☎ 052-290-3659), 중구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junggu.ulsan.kr/tou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울산큰애기 관광해설사는 중구 원도심의 구석구석 펼쳐지는 이야기와 매력을 널리 전파하는데 촉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서 전문성과 특색 있는 해설 서비스로 차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2017년) 눈꽃 축제 현장 사진

중구에 핀 눈꽃(雪花) 길을 걷다.

□ 지난 24일과 25일 성탄절을 맞은 울산 중구 원도심에 올해도 어김없이 새하얀 눈꽃이 활짝 폈다.

울산을 대표하는 겨울철 이색축제인 '제13회 울산중구 눈꽃축제'가 원도심 일원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중구, 눈꽃(雪花)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눈꽃축제를 위해 문화의거리 끝에 설치된 높이 12.5m의 대형 트리 앞에는 각종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시계탑에 설치된 지름 6m의 대형 리스와 인근의 가로수 등에 설치된 조명등, 마두회 조형물 인근에서도 카메라 셔터 누르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문화의거리 곳곳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이어지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기도 했다.

본 행사가 열리는 성남119안전센터 앞 광장은 런던의 크리스마스를 연상시키는 꽃가지 조명과 함께 각종 공연이 더 해져 흥겨움이 넘쳐났다.

“
백설공주 등 동화책 이야기
3개 이용한 체험존,
산타도호부사 퍼레이드
등으로 재미 더해
”

비터스위트, 제이모닝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질 땐 이들을 핸드폰에 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클럽DJ쇼가 진행될 때는 흥겨운 비트에 몸을 실어 춤을 추는 젊은이들도 눈에 띄었다.

올해 처음 진행된 백설공주, 성냥팔이, 스쿠르지 등 3개 동화책 이야기로 꾸며진 임무체험존은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젊음의거리와 원도심 일원에서 열린 산타도호부사 퍼레이드도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틀 동안 중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케이드 내 인공눈이 쏟아지고, 성남119안전센터 앞 광장에서 2대의 조설기를 이용해 만들어 진 눈꽃이 내릴 때는 곳곳에서 탄성이 이어지며, 시민들의 얼굴에 함박 웃음이 더 해졌다.

소원의 벽과 소망지 달기 나무 앞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소원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메시지를 적는 모습도 보였다. 

중구, 한국석유공사와 저소득 안전 취약계층 지원 업무 협약



□ 울산 중구청과 우정혁신도시 최초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석유공사(사장 양수영)가 지역 저소득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 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측은 저소득 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의 안전 교육을 진행하며, 주민 편의시설과 노후 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이게 된다.

앞서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9월 중구청과 연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으며, 11월에는 저소득 고령자와 장애인 세대 등 저소득 안전 취약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경주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해 다양한 안전 지원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 앞장 서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한 삶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중구, 한국석유공사-외식업 중구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 울산 중구청은 11월 26일 한국석유공사, 한국외식업 울산중구지부와 함께 '외식업 골목상권 활성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식수 인원이 많은 한국석유공사가 지역 내 외식업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참여하기 위해 구내식당의 운영을 일부 제한하고자 기획됐다.

협약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는 매월 1차례 이상 구내식당의 휴무를 실시함으로써 중구에서 직원들이 식사를 하도록 권장한다.

한국외식업 울산중구지부는 업소의 위생서비스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한국석유공사 소속 직원들이 단체 이용 시 일부 할인, 음료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중구는 한국석유공사에 외식업소 명단을 제공하고, 외식업소의 위생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위생 점검 등을 실시해 외식업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

현재 한국석유공사의 직원은 1,200명 상당으로 구내식당에서 점심에 7~800여명이, 저녁에 2~300여명이 이용하고 있어 이중 매월 1차례 저녁 급식만 휴무를 해도 300명 가량이 지역 음식점을 이용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려아연(주), 아름다운 푸드뱅크에 식품운반용 차량 전달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가 12월 4일 울산 중구청 1층 현관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신선한 식재료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식품운반용 차량 1대를 아름다운 푸드뱅크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식품운반차량은 3,000만원 상당으로 지난 4월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가 중구에 지원한 5억원 가운데 중구청이 지정할 수 있는 3억원으로 구입했다.

전달된 차량은 1톤 포터 차량으로 사)21세기울산공동체운동에서 운영하는 아름다운 푸드뱅크에서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저소득 세대 등에 전달하는 식재료를 안전하고 신속하며 신선하게 제공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형철 21세기울산공동체운동 총재는 “차량 노후로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먹거리 위생을 걱정했는데 차량을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는 지난 4월 올해로 3년째 5억원의 후원금을 중구청에 전달해 중구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구-나눔푸드마켓, 저소득 ‘행복한 먹거리 나눔’ 지원 협약



울산 중구청은 12월 5일 2층 소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대표 정근두)과 저소득 ‘행복한 먹거리 나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가구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식료품과 생필품 등이 필요한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 60세대를 발굴해 연계하고, 울산 나눔푸드마켓은 선정된 대상자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상자는 2019년 11월까지 1년 중 중구청이 선정한 시점부터 6개월 동안 매월 3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받게 되고, 식료품과 생필품은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의 후원으로 마련된다.

이건록 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백미와 라면 등 식료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나눔공간으로서 물품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곳곳에서 실현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랑의 김장나눔



바르게살기 다운동위원회, 사랑의 김장담그기



중구청-한국식용공사, 2018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 실시



세마을지도자 대화동협의회·부녀회, 사랑의 김장나눔기



울산나눔회, 중앙동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바르게살기 우정동위원회, 사랑의 김장나눔기



학성동여성자원봉사회,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중구새마을회, 2018년 사랑의 이웃돕기 김장나누기



중울산농협, 올해도 지역 사회와 아름다운 동행



중구 드림스타트, 사랑드림 김장담그기



병영2동 주민자치위,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병영1동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김치 전달

추운 겨울 이어지는 사랑의 후원금·물품 전달



중구소년소녀합창단, 이웃돕기 후원금 전달



복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노인 행복도시락 전달



학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이불 전달



약사동 중가9길 청년회, 사랑의 물품 전달



파랑새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후원금 전달



복산2동 주민자치위, 사랑의 장학금 전달



병영2동 새마을문고회, 저소득층에 이웃사랑 라면 전달



반구2동 새마을협의회·부녀회 이웃사랑 물품 전달



병영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불세탁 봉사활동



우정동 선경2차아파트부녀회, 사랑나눔 라면 기탁



약사동 자율방범대, 사랑나눔성금 50만원 전달



반구2동, 사랑의 트리 행복 나눔



복산1동 우리춤 프로그램 관계자들, 백미 전달



바르게살기 복산1동위원회, 사랑의 내의 후원



홈플러스 임직원, 지역아동센터 나눔박스 전달



태화동지역사회보장협, 사랑의 이불 전달



다운동 익명의 기부천사, 사랑의 백미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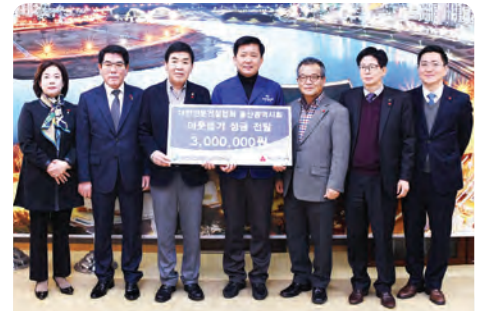
다운동지역사회보장협, 사랑의 반찬 나누기



바르게살기 반구2동위원회, 사랑의 떡국떡 전달



반구2동 그린리더협, 사랑의 이웃돕기 실천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 사랑의 후원금 전달



바르게살기 복산2동위원회, 따뜻한 겨울나기 이불 전달



울산백로예술단 이웃돕기 후원금 전달



청소년선도지도회 중앙상담실, 온누리상품권 후원

한글사랑을 알리는 2018 한글문화예술제, 성황리에 끝나다

박삼동 기자



572돌 한글날 및 외솔 최현배 선생 탄생 124돌을 기념하여 2018 한글문화예술제 지난 10월9일 울산 중구 문화의거리와 외솔 기념관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한글,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전국 한글공모전과 학술대회, 한글사랑 거리 행진, 한글사랑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울산동헌에서 열린 한글과거제에는 외국인 150명, 초등

학생 100명 등 총 250여명이 비취색 도포와 유건을 쓰고 성균관 유생처럼 참여해 눈길을 모았다. 이번 과거제의 시제는 한글이고 두 글자로 2행시를 지어 제출했다. 네팔인 비나씨가 영예의 장원을 차지했다.

외솔 최현배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우리구는 한글문화예술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으로 한글문화 전파에 힘쓰고 있다. 최현배 선생은 '한글이 목숨'이라는 신념을 갖고 한글맞춤법 통일안 제정 등 많은 저서를 통해 우리말 퍼기에 힘쓰셨다. 이러한 업적을 기려 생가를 복원하고 외솔기념관, 외솔한옥도서관, 한글거리를 조성했다.

앞으로 우리구가 한글문화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고 전국에 한글사랑을 널리 알리는데 더욱 힘쓰길 기대한다. 그리고 울산 시민과 국민 모두가 한글날 뿐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말과 글을 더욱 사랑하고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알려 외국인에게도 전파되길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한글을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학성 역사체험 탐방로 걷기대회

박원관 기자



학성 역사체험 탐방로 걷기대회가 10월 13일(토) 오전 9시 학성산 야외쉼터에서(울산MBC 사옥 옆) 개최되었다. 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을 꽉 메울 만큼 많은 중구민들이 참여했다.

올해 7회째 개최되는 이날 행사에는 박태완 중구청장, 신성봉 중구

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시, 구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울산 종합일보에서 주최·주관하였고 몸풀기 체조, 역사체험 걷기, 보물 찾기, 행운권 추첨 등으로 진행되었다. 걷기코스는 3.5Km거리로, 학성산 야외쉼터를 시작하여 주상절리-학성공원 정문 출입구 - 삼지환 - 김홍조 공덕비 - 충의사 - 구강서원 - 여성회관 - 학성산 솔밭으로 돌아오는 구간이었다.

2012년에 조성한 학성 역사체험 탐방로는 울산의 전통과 역사가 깃든 학성공원과 구강서원, 충의사를 둘러보는 역사교육의 현장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울산의 애환의 역사를 다시 되새기고 바로 알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가족단위와 지인들이 함께 걷는 즐거움으로 체력을 튼튼히 할 수 있었다. 특히 어린이와 학생들의 많은 참여로 다 함께 역사탐방을 통해 학습장소로 활용하는데 관심과 인기가 높았다.



2018 눈꽃축제 트리 점등식

양승현 기자



11월30일 오후 6시 문화의 거리에서 2018눈꽃축제 트리 점등식 행사가 있었다. 점등식의 밝고 아름다운 에너지를 듬뿍 받으려는 시민들이 함께 했다. 중구어린이 합창단과 그린나래예술단 어린이들의 축하공연은 신선한 감동과 귀여움과 즐거움을 선사해주었고 부산 광복동에서 일요일마다 공연을 한다는 노신사밴드90은 건강한 모습으로 트럼펫연주를 이어갔다. 새 희망과 축복의 트리점등식은

11월 마지막 날의 행복한 나들이가 되었다.

2018년 12월 연말의 행복과 2019년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담은 희망나무가 되어줄 트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희망찬 새해의 축복을 만들어 줄 것이다. 밤의 트리는 낮에 보지 못했던 새로움을 발견하는 색다른 재미가 있고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 여러모로 어둡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시민들에게 밝은 긍정의 에너지와 메시지를 가득 담아 전했다.

2018년 눈꽃축제의 희망메세지가 널리 널리 전파되어서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울산중구'의 위상이 전국에 알려져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주길 환하게 빛나는 트리에 담아 두 손 모아 기도를 했다. 그리고 우리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구민들의 배려와 사랑, 친절함을 널리 알리고 문화해설사의 활동도 기대가 된다. 트리가 희망의 등불이 되어 구민들의 마음에 따뜻한 사랑과 행복 연말의 넉넉함을 전해주리라는 기대를 해본다.

중구뉴스기자단 우리고장 문화탐방

중구뉴스기자단



11월 3일 중구뉴스기자단이 지역문화 탐방을 통한 우리구 문화관광 발전제안을 위해 울주군 간월산과 언양읍성을 찾았다.

간월산을 먼저 찾았다. 해발 1069미터인 간월산은 전국에서 모여든 등산객들이 넘쳐났고 울주군에서는 복합웰컴센터를 비롯하여 주차장을 곳곳에 확보하여 이들을 지원하였다. 우리구의 입화산, 황방산, 성안옛길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을 울주군처럼

전략적인 등산·트래킹 코스로 개발하고 방문객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기자단은 하산하여 다음으로 언양 읍성을 방문했다. 사적 제153호인 언양읍성은 국내에서는 매우 드물게 정사각형으로 쌓은 성이 평지에 축조된 점이 특징이었다. 역사적 기록은 안내판에 잘 설명되어 있었고, 아직 전체가 복원되지 않은 점은 우리구 병영성과 유사했다. 언양읍성은 복원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안내소에서 영상으로 복원도를 소개하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현장에서 VR로 보여주어 현장감을 높였다.

문화해설사가 상주하여 안내와 해설을 하고 영상과 VR로 복원된 모습을 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훨씬 중요한 우리구의 경성좌도 병영성 관광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 복원에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할 때, 경제적으로 유용하고 옛 문화를 학습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울산중구의회, 제211회 제2차 정례회 활발한 활동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신성봉)가 무술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2018년 마지막 정례회 활동을 펼쳤다.

중구의회는 지난 11월 19일 제21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3일간의 의사일정을 벌였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중구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지근)와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권태호)가 각각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올 한해 주요 구정업무를 살펴보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쳤으며 3,679억원 규모의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희성)의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12월 1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통해 2019년도 당초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어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 뒤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3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지었다.

신성봉 의장은 “제7대 의회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24만 구민이 주신 소중한 권한과 책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며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구민에게 신뢰받고 공감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울산중구의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견제와 균형추 역할 ‘톡톡’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 박채연 의원 김기환 의원 이명녀 의원 강혜경 의원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신성봉)가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지근)는 기획예산실과 일자리창출실, 청렴감사관, 행정자치과 등 20개 소관 실·과·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비롯해, 용역 과정에서 도덕성 논란, 마두회 축제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내실화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권태호) 역시 주민생활지원과와 경제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 안영호 의원 문희성 의원 노세영 의원 박경흠 의원

산업과, 도시과 등 13개 소관 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쳐 입화산 관리시설의 호화별장 의혹을 파헤치고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의 불투명한 예산운영, 고도제한 완화문제,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 등을 지적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제7대 중구의회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인 데다 60%가 넘는 초선의원 비율(7명)에도 불구하고 면도날 같은 예리함으로 냉철한 정책 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활발한 연구 및 교육 활동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신성봉)가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구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에 앞장서고 있다.

중구의회는 지난 10월 22일 일본 군마대학 다나카 마리 교수를 초청해 방재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강사로 나선 日 방재전문가 다나카 마리 교수는 집중호우와 태풍이

찾은 태국과 일본의 방재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울산이 배워야 할 시사점 등을 설명했다.

특히 우수한 방재기술력을 자랑하는 일본의 자연재해 예방 시스템의 장·단점을 일본 전문가로부터 직접 설명 듣고 자료를 전달받는 기회를 가져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중구의회는 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초선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정실무교육을 가졌다.

이번 제7대 중구의회는 첫 등원한 의원이 전체 11명 중 7명으로 6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신성봉 의장은 “공부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정상 정립을 위해 중구의회는 지속적으로 세미나와 공청회, 연찬회 등을 열어 의원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하는 중구의회’ 실천



□ 울산 중구의회(의장 신성봉)가 활발한 주민 간담회로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구의회는 지난 11월 29일 중구여성자원봉사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고를 격려하고 봉사 현장에서 겪는 애로점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옥외광고협회 중구지부와도 간담회를 열고 지역 광고관련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중구의회는 또 각종 조례안의 제·개정에도 관련 주민과 자생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국외공무원수 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단체와 언론계 관계자를 초청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목적으로 한 웰다잉(Well-dying) 조례 제정을 앞두고 울산여성의 전화와 웰빙&웰다잉센터 관계자 등과 만나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장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신성봉 의장은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의회의 첫 번째 책무”라며 “조례를 만들고 고치는 일은 물론 민원이 있다면 의회는 언제든지 주민과 만나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동파예방 특효약! 개랑기도 동산에 걸릴수 있습니다.

겨울철 수도계랑기 동파예방은 이렇게!!

**조금만 신경 쓰시면 겨울철 개랑기 파손으로 인한
수돗물 공급중단의 불편과 수돗물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랑 바로 확인합니다

- ▶ 외관상 개랑기 보호통의 뚜껑부분에 틈새가 있는지
- ▶ 개랑기 보호통 내에 누수가 있거나 지하수 등으로 물이 고이는지
- ▶ 개랑기 보호통내 보온재가 파손되어 있는지
- ▶ 옥외 화상집 등 외부에 노출된 수도관이 보온재로 덮여 있는지



이렇게 조치합니다

- ▶ 형질 등으로 개랑기 보호통 외부의 틈새를 막고
- ▶ 개랑기 보호통 내에 고인 물을 제거
- ▶ 개랑기 보호통내 보온을 위해 패딩 등으로 외부 찬공기 차단
- ▶ 외부노출 수도관에 대해 형질 등으로 보온조치

※ 양기단 찬물 배수시(12월) 양기단 10°C이하의 추위에 계속될 때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수돗물을 흐르게 하시면 대부분이 동파는 예방됩니다.



이렇게 대처합니다

- ▶ 응급조치로 해어 드라이기로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이시면 됩니다.
- ※ 수도계랑기는 5.0°C 이상의 물로 녹이면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 ▶ 개랑기가 깨어지거나 수도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는 즉시 해당 지역사업소로 연락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중부사업소 : 229-5650~1

중부사업소 : 229-5710~1

울주사업소 : 229-5790~7

남부사업소 : 229-5690~7

북부사업소 : 229-5740~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질병으로부터 내 몸과 친구들을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

치료보다 예방접종

2018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지원이 12세까지 확대됩니다!



2018 ~ 2019학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안내

지원대상



생후 6개월 ~ 12세 어린이 (2006. 1. 1. ~ 2018. 8. 31. 출생자)

* 인플루엔자 유행기간을 고려하여 2018년 2월 29일 기준으로
생후 6개월이 되는 대상까지 지원

지원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회

- * 생후 6개월 ~ 만 6세 이하 소아 중 대상자는 2회 접종 지원
-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는 이전 접종유무와 무관함
- * 2018. 7. 31일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회만 접종 가능
- * 예방접종 일정 및 접종처는 예전과나와 달라져야 합니다.

접종기관 지정 의료기관 (보건소, 종합병원)

- * 지정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https://nip.cdc.go.kr/cente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2018. 10. 2. (화) ~ 2019. 4. 30. (화)

(단, 2회 접종 대상자는 2018. 9. 11. (화)부터 접종 시작)

※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 따라 전년 10~11월, 학생은 방학 전에 접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서울특별시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부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한국건강관리협회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국민건강보험공단



Korea National Child Health Center
한국건강관리협회

혁신 중구, 새로운 시작

박태완 구청장과 함께하는

소통! 혁신 속으로

속 시원~한 소통을 위해
구청장이 직접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운영 일시 매월 셋째주 목요일
15~16시 (변경 가능)

신청 대상 구청장과의
대화를 원하는
주민 누구나
(15인 이상)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행정자치과 (290-3262)
유선 또는 방문신청



울산광역시 중구

다들 다들 빈틈없이,
이웃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집중기간 운영

집중기간 2018. 11. 15. ~ 2019. 2. 28.

상담신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

울산광역시 중구

JUNG GU SERVICES www.junggu.ulsan.kr

혁신 중구 새로운 시작

척척 중구 기동대가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CIVICS생활민원지원팀

배관시설

- 수도꼭지, 샤워기, 고무배관 교체
- 세면대, 욕기 등 누수 고쳐
- 싱크대, 화장구, 변기, 세면대 등 배관 막힘 제거

전기시설

- 전기, 콘센트, 형광등, 전기 스위치 등 교체
- 전기차단기, 환풍기 등 점검 및 수리

도로 긴급복구 및 제조

소규모 집수리

- 문 닫기, 문락, 문고리, 창문틀, 창문틀, 비문틀 타일 보수
- 벽면물 주는 나무 가지치기
- 구입생활 물품사탕 등 즉시 치료가 가능한 민원

기타불편사항

- 벽에 건조대 설치
- 생활물 주는 나무 가지치기
- 구입생활 물품사탕 등 즉시 치료가 가능한 민원

하수도 생활민원처리

2019년 1월부터 접수 가능

만 원 접수 0521 290-3500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서비스대상 중구 주민 누구나

※ 관내사무소 설치된 광물부존 제외
※ 방문이 어려운 주민 등
※ 기존 생활수납기 및 시외지역에 출장비 부담서비스

울산광역시 중구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작은소리 큰 울림

차량통과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구간을 찾아다니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구간을 찾아다니며

울산광역시 시민선문위원회 052-229-3911-3

출산 축하용품 지원

기간 연중

지원대상 2,000명

- 울산광역시 중구에 출생 신고한 출산 가정
- 출생아의 부모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중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

신청 및 지급장소 동 주민센터

지원내용 귀 최외선제온계, 방수요, 빗방, 기저귀, 모빌, 진공단열 스테인리스 하드시퍼(보통전용)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

혁신 중구 새로운 시작

2019
올해의 관과도시
울산 중구

2019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월루 해맞이 행사

2019. 1. 1.(화) 06:00~09:00 함월루 정상 (경찰청 앞 정상)



신년행사 : 축하공연, 새해덕담, 2019소원 전자박 터뜨리기 등
참여행사 : 새해LED형광봉 불빛하모니, 소원지, 희망엽서 등
나눔행사 : 희망저금통 나누기, 떡국나누기, 어묵 · 차 제공

주최·주관: 울산광역시 중구문화원

후원: 울산광역시 중구